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방글라데시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21년 8월 31일 | 책임연구원 이지혁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48천 km <sup>2</sup> 	<b>인구</b> 1.6억 명 (2021 <sup>f</sup> ) 	<b>정치체제</b> 의원내각제 	<b>대외정책</b> 비동맹중립 
<b>GDP</b> 3,529억 달러 	<b>1인당GDP</b> 2,122달러 (2021 <sup>f</sup> ) 	<b>통화단위</b> Taka 	<b>환율(U\$기준)</b> 85.23 (2020) 

- 벙골만 연안에 위치한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면을 인도와 접하고 있으며 남동부의 일부 지역은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세계 8위(아시아 5위)의 인구 대국으로서 소득수준 향상 시 내수시장의 빠른 성장이 기대됨.
- 1947년 인도(힌두교)와 파키스탄(이슬람)이 영국에서 분리독립할 당시, 이슬람을 믿는 동벙골 지역(현 방글라데시)은 파키스탄의 일부인 동파키스탄으로 편성되었음. 이후 파키스탄 중앙정부의 차별 정책에 반발한 동파키스탄이 지속적으로 독립을 요구한 끝에 1971년 아와미 연맹(Awami League)을 주축으로 한 독립군이 인도 정부의 지원으로 독립전쟁에 승리하면서 방글라데시를 건국하였음.
-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봉제업 외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 정책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2021년 최빈국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2026년에 최빈국을 정식으로 졸업할 예정임.
-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의 3연임으로 정치는 안정적인 편이며, 실리주의 외교를 통해 중국과 인도 등 주변 강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3. 12. 18 수교(북한과는 1973. 12. 16)

**주요협정** 무역경제협력협정('73년), 항공협정('79년), 문화협정('79년), 사증면제협정('83년), 이중과세방지협약('84년), 투자보장협정('88년), 경제기술협력협정('95년), 과학기술협력협정('95년),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97년), 군수방위산업협력양해각서('04년), 무상원조협정('14년)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1,238,299	1,282,342	1,033,331	석유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수입	346,507	404,703	392,918	의류, 신변잡화(신발·가방등), 동제품

**해외직접투자 현황(2021. 3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323건, 390,739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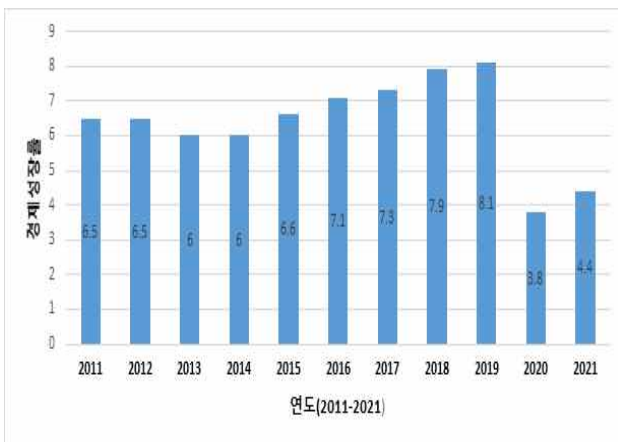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sup>f</sup>
경제성장률	7.3	7.9	8.2	3.8	5.0
소비자물가상승률	5.4	5.8	5.5	5.6	5.8
재정수지/GDP	-3.3	-4.6	-5.4	-5.5	-6.0

자료: IMF, EIU

### 2021년부터 완만한 경기 회복이 예상되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이 큰 변수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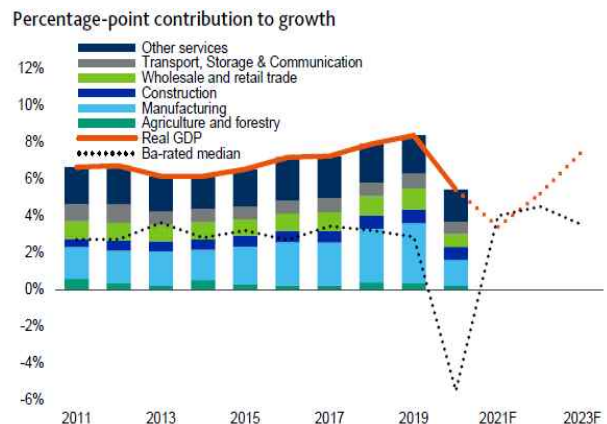
- 방글라데시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부터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으며, UN이 지정한 최빈국 졸업을 위한 3가지 기준(1인당 국민소득, 인적자산지수, 경제적 취약도)을 모두 충족하여 2026년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할 예정임. 팬데믹 위기 상황에도 비슷한 경제 수준의 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전체 수출의 80% 이상(GDP의 8.5%)을 차지하고 있는 의류 수출의 회복, 해외근로자 송금의 증가와 그에 따른 내수소비 진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2021년 6월부터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2021/22회계연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 여부는 불투명함.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0

경제성장률 추이와 산업별 기여도(%)



자료: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Moody's Investors Service

## 국내경제

###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성장 목표 달성 불투명

- 전망기관에 따른 편차는 있으나, 방글라데시의 2021/22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평균 6.6%로 예상됨. 지난 2019/20회계연도의 경제성장률 3.8%(IMF 기준)은 40년래 가장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이었으나, 이후 2020/21회계연도에는 5.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아울러 주요 기관도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이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3차 대유행이 일어나기 전에 나온 전망치로,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반영되지 못한 것임.

주요 기관별 방글라데시 경제성장률 전망(%)

회계연도/기관	ADB	IMF	WB	EIU	Fitch Solutions	방글라데시 정부
2020/21	6.8	5.0	3.6	5.2	5.5	5.2
2021/22	7.2	7.5	5.1	5.9	6.7	7.2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 인도와 인접한 방글라데시는 2021년 6월부터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7월 중순부터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음.
- 경제성장은 주로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에 의해 견인되고 있음. 특히 중국이 저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량을 줄여감에 따라 방글라데시의 제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음.

### 상품수출은 완만한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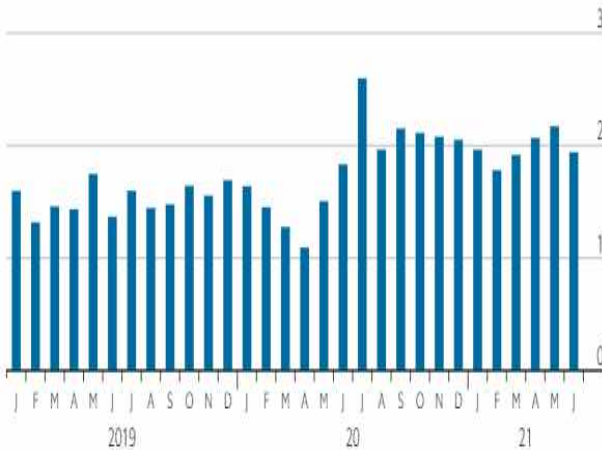
- 방글라데시 수출진흥청(EPB)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하였음. 그러나 4월 한 달 동안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0% 증가하면서 2020/21회계연도 첫 10개월 동안의 상품수출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동기보다 8.74% 증가한 32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의류 260억 달러).
- 총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의류(RMG) 수출은 동 기간 6.24% 증가하였음. 의류도 3월과 4월의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부진을 만회할 수 있었음. 의류 수출은 주요 수입국인 유럽과 미국의 봉쇄조치 완화와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상태로 서서히 회복 중임.
- 동 기간 의류를 제외한 주요 수출품으로는 황마(30.88% 증가, 10억 달러), 농산물(9.1% 증가, 8억 달러), 수산물(4.17% 감소, 3억 달러), 의약품(12.22% 증가, 1억 달러), 가죽 및 관련 제품(8.56% 증가, 7억 달러) 등이 있음.

## 국내경제

### 기록적인 해외송금 유입으로 민간소비는 크게 위축되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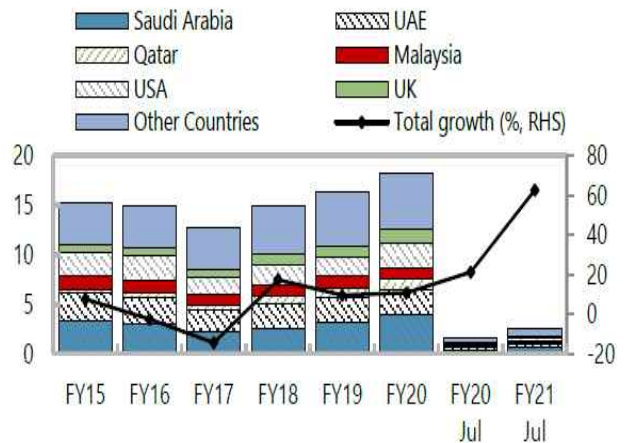
- 정부가 7월 1일부터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2021/22회계연도 동안 빠른 경제 회복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민간소비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 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해외근로자 송금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음.
- 2020년 해외송금 유입은 GDP의 6.6%(217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8.4% 증가한 것임. 코로나19 발발 초기인 2020년 초반에는 송금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2020년 하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2021년 1~4월에는 42% 증가하였음.
- 글로벌 팬데믹 상황임에도 해외근로자 송금이 증가한 이유로는 정부의 해외송금 2% 현금 인센티브 정책<sup>1)</sup>과 서류 요건 완화,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비공식적 채널의 송금이 줄어든 점, 해외 근로자의 귀국 전 송금, 방글라데시 근로자가 가장 많이 진출한 중동 국가들의 경기 회복 등을 꼽을 수 있음.

해외송금 유입 변화(2019.01~2021.06)



자료: Bangladesh Bank; Haver Analytics  
주) 단위: 십억 달러

해외근로자 국가별 송금(2019.01~2021.07)



자료: Bangladesh Bank; EPB; IMF Staff Calculation  
주) 단위: 십억 타카(BDT)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운송비용 상승 등으로 5%대 유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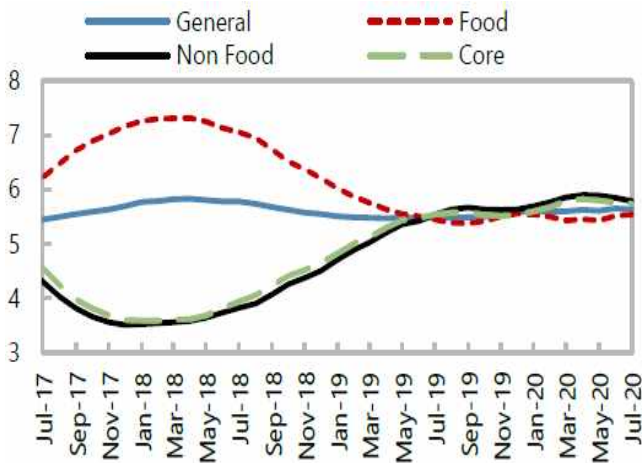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1/22회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5.3% 수준에서 억제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EIU는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5.7%로 전망하고 있음.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이후 반복된 이동 제한으로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운송비용이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임.

1) 방글라데시 국민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할 때 정부가 송금액의 2%를 추가로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이는 공식적인 채널로 송금하는 것을 격려하려는 정부 정책으로서 15만 타카 미만이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 없으며, 15만 타카 이상의 현금을 송금할 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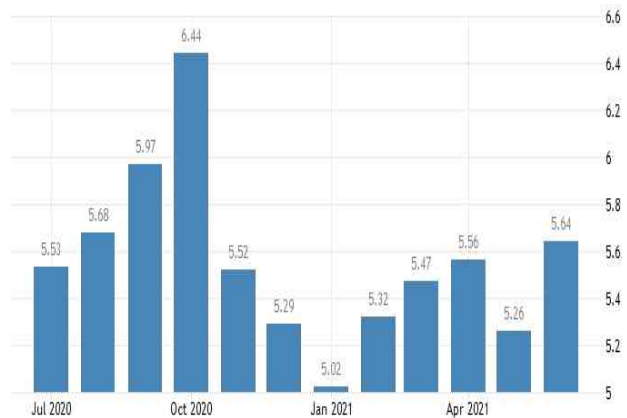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는 2021년 5월 0.3% 하락했으나, 6월에는 1.3% 상승했는데, 이는 소비자물가지수의 60%를 차지하는 식품 가격의 상승에 힘입은 바가 큼. 5~6월에 마무리된 벼 수확의 풍년으로 쌀을 비롯한 주요 작물의 가격 상승폭이 높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 상승한 운송비용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상쇄되었음.
- 우기 동안 자주 발생하는 홍수로 인해 식량 가격이 급등할 수 있지만, 방글라데시의 기록적인 외화보유액을 감안할 때 부족한 부분을 적시에 수입으로 대체함으로써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임.
- 연료 가격 규제와 의료 서비스 비용 안정을 위한 조치가 소비자물가의 극심한 변동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2개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etc.

최근 1년 간 소비자물가상승률 변동 추이(%)



자료: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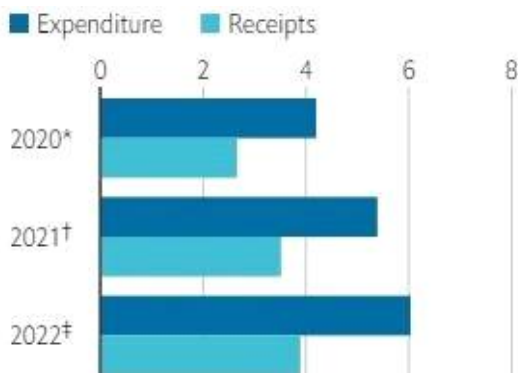
## 기업 세금 감면 혜택과 코로나19 대응 지출로 재정수지 적자 확대 예상

- Mustafa Kamal 재무장관은 6월 초에 2021/22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1/22회계연도 예산은 GDP의 17.4%인 6.04조 타카(약 720억 달러)로 직전 회계연도 예산보다 6.34% 증액된 액수임. 본 예산안은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6.2%에 달하는 2.15조 타카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직전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GDP의 6.0%)보다 0.2% 포인트 늘어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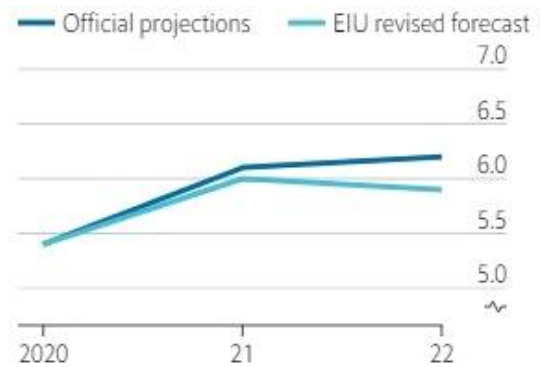
## 국내경제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0/21회계연도 동안 기업에 대한 부분적 세금 감면 계획을 발표했음. 동 계획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35%→32.5%), 의류 가공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2018년 7월부터 법인세율 15% 적용), 세금 감면 대상 기업 확대(핸드폰 조립, 쓰레기 처리, 전자제품)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통신 및 디지털 기업을 주요 세수의 원천으로 간주하고 있음.
- 4월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GDP의 2.5%에 달하는 7천 275억 타카를 경기부양책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함. 코로나19로 초래된 경기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천억 타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 지원하고, 2천억 타카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임. 방글라데시 정부는 앞서 의류 수출 산업 종사자 임금 지원에 500억 타카를 지출한 바 있음.

2021/22회계연도 재정수지



자료: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EIU  
주) 단위 조 타카,  
2020(실제), 2021(수정 추정), 2022(예상)



자료: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EIU  
주) GDP 대비 %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sup>f</sup>
경 상 수 지	-5,985	-7,095	-2,949	1,082	-3,448
경상수지/GDP	-2.4	-2.6	-1.0	0.3	-1.0
상 품 수 지	-12,966	-17,284	-15,929	-16,382	-21,534
상 품 수 출	35,301	38,682	38,747	32,468	34,643
상 품 수 입	48,267	55,966	54,676	48,850	56,177
외 환 보 유 액	31,289	29,973	30,648	41,036	44,818
총 외 채	54,737	60,356	70,340	77,016	80,079
총외채잔액/GDP	21.9	22.1	23.3	23.4	22.7
D.S.R.	6.0	4.7	5.5	6.2	10.0

자료: IMF, EIU

### 수입 수요의 증가로 2025년까지 경상수지 적자 예상

-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는 추세임. 경상수지 적자는 2021년 GDP의 0.8%에서 2025년에는 GDP의 2.2%까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방글라데시는 저부가가치 의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원자로(nuclear reactor), 인프라 사업을 위한 원자재, 그리고 자본재 및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소비재 수요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근로자 송금과 원조자금 유입분이 매년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 폭을 상당 부분 줄이고 있음.
- 중기적으로는 중국이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 재분배 효과가 방글라데시 수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주요 무역 상대국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상황이 일상화됨에 따라 상품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임. EIU는 2021년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37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수출진흥청(EPB)이 잠정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상품수출은 전월 대비 15% 증가한 35억 달러로,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1.8% 증가한 것임. 유럽과 미국으로부터의 의류 수입 증가로 2021년 후반기에 상품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지만 강력한 봉쇄조치가 내려졌을 때도 수출과 관련된 공장은 중단없이 가동되었음. 다만, 봉쇄조치가 수출과 관련된 물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외채상환능력

### 외채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외채구조는 비교적 안정적

- 2021/22회계연도 세입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외채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방글라데시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외채로 보전함에 따라 외채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양허성 차관과 무상원조를 포함한 외채가 직전 회계연도보다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이처럼 큰 폭의 증가에는 2020/21회계연도의 외채 비중이 이전 회계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기저효과도 원인으로 작용함. 외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대형 인프라 사업, 경기침체, 취약한 세수 기반, 코로나19 대응 자금 등을 꼽을 수 있음.
- 다만 총외채의 상당 부분이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채구조는 안정적이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음.

## 구조적취약성

### 최빈국에게 주어지는 특혜에 대한 높은 의존도

- 방글라데시는 2018년과 2021년에 UN이 정한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 졸업을 위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전환 기간(transition period)이 끝나는 2026년 정식으로 최빈국에서 졸업할 예정임.
- 중진국으로 진입하면 그동안 최빈국에게 주어졌던 무역 관련 특혜가 사라지므로, 정부 차원에서 남은 기간 특혜관세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모색과 민간기업 차원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됨.
- 방글라데시는 의류 수출의 62%와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하는 유럽으로부터 '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Everything But Arms, EBA)'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특혜를 받고 있음. 유럽 이외에도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한국, 인도, 스위스, 러시아, 터키, 호주 등이 무역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의 정책연구소인 '정책대화센터(Center for Policy Dialogue, CPD)'는 무관세무쿼터(Duty-free and Quota-free, DFQF) 자격 상실이 해마다 수출실적의 8~10%(약 25억 달러)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함.
- 방글라데시 정부는 최빈국 졸업 후 EU에서 제공하는 GSP Plus<sup>2)</sup>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나, GSP Plus 특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 방글라데시 정부는 무역 특혜 상실에 따른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 운영비용 감축 및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FTA 체결을 모색 중임.

### 수출상품의 다변화 및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도화 필요

- 방글라데시는 지난 30년간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선진국의 무역특혜를 기반으로 의류산업을 핵심 수출산업으로 성장시켰으나, 동시에 이는 단일 산업과 상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낳는 결과를 초래했음. 의류제품이 전체 수출상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수출시장도 EU 및 미국에 70% 이상 편중되어 외부충격에 취약함.
- 총수출에서 의류 부문의 비중은 1990년 50%, 2010년 78%, 2020년 83%로 계속 증가했음.
-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2020년 상반기에 베트남이 방글라데시를 제치고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의류 수출국으로 등극했음. 이는 코로나19로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고려할 때 방글라데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sup>2)</sup> EU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1971년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GSP 이외에도 지속가능한개발 및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위한 특별협정(GSP Plus)과 최빈국을 위한 특별협정(EBA)을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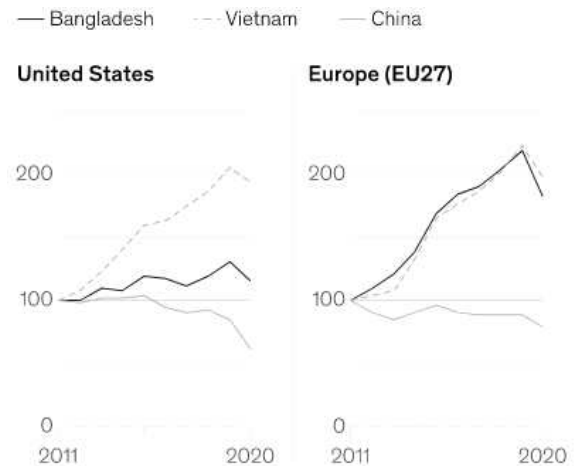
## 구조적취약성

- 2020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베트남의 섬유와 의류 수출은 131억 8천만 달러였으며, 방글라데시의 의류(RMG) 수출은 119억 2천만 달러였음. WTO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방글라데시는 340억 달러 수출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6.8%였고, 베트남은 310억 달러 수출로 6.2%였음.
- 글로벌 바이어들의 베트남 선호, EU-베트남 FTA 발효(2020년 8월), 베트남의 상품 다각화 등은 향후 의류 수출 경쟁에서 방글라데시의 위치가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의류 상품의 다각화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단일 산업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상품의 다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도화가 절실히 필요한 단계임.
- 현재의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설 확충, 산업 전반에 필요한 인프라 개선, 물류 시스템 개선, 중소기업의 디지털화가 필요함.

방글라데시-베트남 의류 상품 수출 비교(2020년)



방글라데시-베트남-중국 의류 수출 가치 비교



자료:EPB;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 Nam  
주) 단위: 10억 달러

자료: Eurostat; USITC; McKinsey analysis  
주) 인덱스(2011=100)

## 취약한 세수기반 및 원조자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로 재정적자 확대

- 방글라데시는 2012년 이후 조세수입 목표액과 실제 세금 징수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세수기반, 비효율적인 세제, 낙후된 징세 시스템, 고질적인 납세 누락 등으로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이 9%를 넘지 못하고 있음.
- 2019/20회계연도 조세수입 목표는 3,400억 타카였으나, 실제 징수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200억 타카였음.

## 구조적취약성

- 방글라데시 정부는 매년 재정수입이 예산상 목표치를 하회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정적자를 관리하는 한편,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제기구(WB, ADB) 및 일본 원조자금(JICA)과 중국 차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채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팬데믹에 취약한 보건의료 체계는 외채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음.
- ADB는 올해 6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해 9.4억 달러,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5억 달러 차관을 승인하였음. 세계은행은 올해 1월에 방글라데시 농촌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복원력 강화를 위해 3억 달러 차관을 승인하였고, 6월에는 고등교육 가속 전환 사업(Higher Education Transformation Project)을 위해 1.9억 달러 지원을 승인하였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부족한 자원 확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민관협력사업청(Public Private Partnership Authority Bangladesh)을 설립하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음.

### 조세수입 목표와 실제 조세 징수액 비교



자료: Ministry of Finance;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주) GDP 대비 %, (-: 조세수입 목표, -: 실제 조세 징수액)

##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높은 취약성

- 낮은 고도, 높은 인구밀도, 열악한 인프라 시설, 농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방글라데시를 기후변화에 예외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임. 매년 해수면 상승, 폭우, 사이클론, 가뭄, 침식, 산사태, 홍수, 염화 등으로 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고 있음. 글로벌 기후위험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인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자연재해는 총 191건이며 총 손실규모는 16.9억 달러(PPP 기준)로 집계됨.
- 올해 5월 인도 동부와 방글라데시를 강타한 사이클론 야스(Yaas)는 방글라데시에서 15,000명의 수재민, 수천 채의 가옥 붕괴와 농지 및 양식장 파손을 초래했음.

## 구조적취약성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해수면 상승이 경제에 실질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방글라데시 국토의 2/3는 해발 5m 아래에 놓여있으며 방글라데시 인구의 28%가 해안에 거주하고 있음.
- 2050년까지 해수면 상승이 50c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약 11%를 잃게 될 것이며 저지대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1,5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됨.
- 해수면 상승은 해안 지역의 식수를 오염시켜 임신 중 식욕부진증, 급성 호흡기 질환, 피부병 같은 건강 문제를 초래함. 염화는 토양 황폐화와 수확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방글라데시 경제의 버팀목인 농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성장잠재력

###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거대 시장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

- 방글라데시는 총인구 1.6억 명(2021년 말 전망치)을 보유한 세계 8위의 인구 대국이며 평균 연령이 28.6세(2020년 추정치)로 젊은 국가임.
- 젊고 숙련된 노동력이 풍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신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비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 동시에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어 2030년까지 인구의 48%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인구 1, 2위의 중국과 인도, 인구 6.6억 명의 동남아를 연결하는 경제적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 세계경제포럼(WEF)은 방글라데시가 2030년까지 세계 26위의 경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의 개혁 의지

- 방글라데시 정부는 열악한 인프라 시설을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하고 인프라 개선에 전폭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글로벌경쟁력보고서 2018/2019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전체 순위는 조사대상 141개국 중 105위를 기록했으며, 인프라 경쟁력은 11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함.
- 매년 연간개발계획(ADP)을 통해 예산의 약 35%를 전력, 도로, 철도, 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하고 있음.
- 의류 산업의 성공을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 2010년 경제특구법을 발효하고 총리실 산하에 전담관청(Banqladesh Economic Zones Authority)을 설립하였음.

## 성장잠재력

- 2030년까지 총 100개의 국영 및 민간 경제특구 조성을 추진 중이며, 경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자본소득세 면제(10년간 100%)와 원부자재 관세, 등록세, 인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5년 민관협력사업청(Public Private Partnership Authority Bangladesh)을 설립하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음.
- 2002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FDI는 정점이었던 2015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방글라데시는 2020년 기준 최빈국 중 캄보디아 다음으로 많은 FDI를 유치하였음(캄보디아 36억 달러, 방글라데시 26억 달러).

## 정책성과

### 중진국 진입과 빈곤율 감소를 목표로한 '방글라데시 비전 2021'

- 2008년 총선에서 아와미 연합(Awami League)은 독립 5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까지 방글라데시가 나아갈 방향과 일련의 발전 전략을 포함한 장기계획으로 '방글라데시 비전 2021'(이하 '비전 2021')을 제시했음.
- '비전 2021'은 2021년까지 중진국 진입과 빈곤율 감소를 목표로 제도적 토대 수립, 중진국 진입, 농촌 및 지방 개발, 산업 발전, 수출 제조업 육성, 무역 제도 개선, 지구화의 기회 활용, 외자 유치, 다자주의 무역, 지역 협력, 디지털 방글라데시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음.
- '비전 2021'은 지나친 기술적 낙관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셰이크 하시나 정권은 의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방글라데시의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음.
- 정부의 꾸준한 경제개발 노력에 힘입어 코로나19 발발 이전까지 방글라데시는 10년 동안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15년 하위중소득국에 진입할 기준을 충족했으며, 2021년 최빈국 줄업을 위한 모든 과정을 이행하였음.

### 중진국 진입 이후를 위한 장기 발전 계획, '비전 2041'

- 최빈국 졸업이라는 성공에 고무된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0년 2월에 비전 2021의 후속 계획인 '비전 2041'과 이를 실천에 옮길 구체적 계획이 포함된 2021~41 전망계획(Perspective Plan of Bangladesh 2021~2041, 이하 'PP2041')을 발표했음.

## 정책성과

- '비전 2041'은 2031년까지 절대 빈곤을 퇴치하고 상위중소득국으로 진입하는 것과 2041년까지 빈곤을 퇴치하고 고소득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PP2041의 핵심 목표는 2041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2,500달러 달성, 완전한 디지털화, 빈곤 퇴치임.

### 경제성장 및 빈곤율 목표(PP2041)(%)

구분	벤치마크 FY20	목표 FY31	목표 FY41
실질 GDP 성장률	8.2	9.0	9.9
빈곤율			
절대 빈곤	9.4	2.3	<1.0
빈곤	18.8	7.0	<3.0

자료: Perspective Plan of Bangladesh, 2021-2041

## 정치안정

### 현 여당의 장기 집권 예상

-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아와미 연합(Awami League, 이하 'AL')이 2023년까지 집권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티야(Jatiya)당이 공식적인 원내 야당이지만 이전처럼 행정부를 암묵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예상됨. 비공식적인 군소정당 연합인 자티야 오이카 프론트(Jatiya Oikya Front, OJF)가 실질적인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회 내 대표성 부족으로 여당의 정책 결정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함.
- 방글라데시에는 수십 개의 정당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AL'과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이하 'BNP')이라는 두 개의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지형이 형성됨.
- 'AL'과 'BNP'의 라이벌 관계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BNP'의 당 대표 칼레다 지아(Khaleda Zia)의 구금이 그녀의 건강 악화로 인해 중단되고 있음. 칼레다 지아는 치료를 위해 해외 출국 허락을 요구하고 있지만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녀의 출국을 금하고 있으며, 이는 'BNP' 주도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소지가 되고 있음.
- 강력한 야당 세력의 부재로 2023년 후반기에 예정된 총선에서 'AL'의 네 번째 승리가 예상됨. 'AL'과 권력을 양분하고 있었던 'BNP'는 2014년 총선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과도정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L'이 이를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한 결과 'AL'은 대승했고 야당은 지리멸렬한 상태가 됨.

## 사회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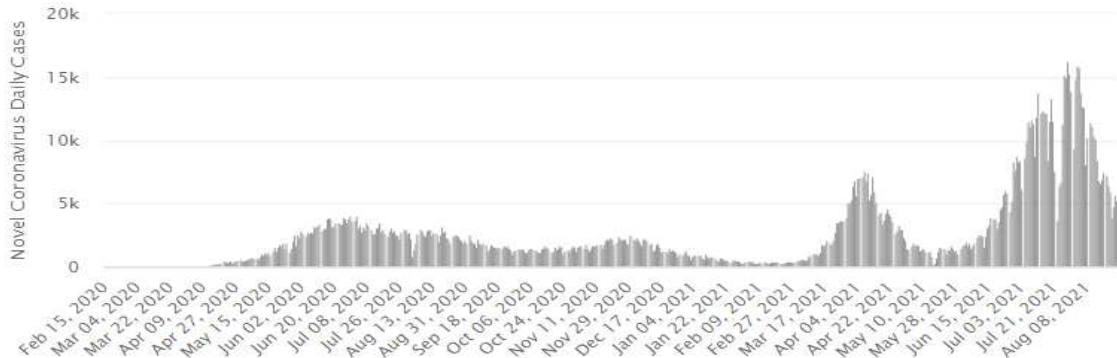
###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급증

- 7월 이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이 넘어서면서 방글라데시 정부가 강력한 봉쇄조치를 시행했지만,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임. 수도인 다카의 경우 6월 초에 3.5% 수준이었던 확진율이 7월 초에는 28.2%를 넘어서고 있음.
- 전문가들은 감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주민들의 낮은 의식 수준으로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는 것으로 분석함.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인도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과 이슬람의 중요 명절인 희생제(Eid al-Adha) 기간(7월 14~23일) 봉쇄를 일시 해제하면서 발생했던 대규모 인구 이동도 급격한 확산의 주된 원인임.



## 사회안정

방글라데시의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2020.02.15.~08.23)



자료: Worldometer

- 백신 접종률은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4.1%에 불과함(8월 25일 기준).
- 방글라데시는 원래 인도로부터 백신을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4월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인도는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백신 수출을 중단했음. 이후 인도와 백신 외교 경쟁을 벌여온 중국이 6월 시노팜(Sinopharm) 백신 110만 회분을 무상으로 지원했음. 방글라데시는 7월에 시노팜으로부터 200만 회분을 구매했으며, 추가로 구매한 1,100만 회분이 3개월 내에 도착할 예정임. 미국도 두 차례(6월, 7월)에 걸쳐 모더나(Moderna) 백신 550만 회분을 무상 지원하였음.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불만이 증대되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함.
- 방글라데시의 보건 및 복지 체계가 미비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은 2021년 후반 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약 14억 달러(GDP의 4.3%)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과 농업 분야 종사자들이 아닌 수출주도형 기업에 할당되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송환 우려 증대

- 2017년 8월 25일부터 미얀마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에 체류하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은 공식집계로는 약 91만 명(2019년 8월 기준), 비공식적 집계로는 약 110만 명으로 추정됨. 2년 내 송환 개시를 목표로 했던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송환 지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난민 체류가 장기화함에 따라 초창기에 현지 주민들이 보여주었던 무슬림이라는 동질감과 연민은 퇴색하고 난민들에 의해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구체적인 불만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며 고용된 난민으로 인한 현지인 고용 감소, 인구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난민 관련 범죄, 현지인과 난민 간의 마찰 등이 있음.

## 사회안정

- 2월 1일에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송환 문제는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쿠데타가 발생한 당일 외교부를 통해 지금까지 로힝야족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지속적인 송환을 위해 미얀마와 협력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송환 절차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음.
-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로힝야족의 라카인주 귀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음. 군부는 로힝야족을 미얀마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귀환에 대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저항하기 위해 구성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는 로힝야족이 자신들과 함께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혁명에 동참하도록 촉구했음.

### Moody's는 방글라데시의 ESG 신용영향점수를 5등급(very highly negative)으로 평가

- Moody's는 방글라데시의 환경 및 사회적 위험에 대한 높은 노출과 부패 통제, 법 집행 및 은행의 관리 감독 분야에서의 제도적 취약성을 반영하여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5등급(very 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월 Moody's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낮은 해발고도와 갠지스강, 부라마푸트라강의 하구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으로 홍수가 잦고, 낮은 소득과 열악한 인프라 시설은 기후와 관련된 재난으로 초래된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킴. 몬순 기후로 인한 계절성 폭우는 농업에 큰 영향을 미쳐 농촌 소득과 소비의 불확실성을 초래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 영향은 E-5(very highly negative)로 평가됨.
- **(사회)** 지난 10년 동안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빈곤율이 개선되었지만, 열악한 물리적·사회적 인프라의 제약으로 여전히 경제발전이 더디고 소득수준이 낮음. 또한 낮은 수준의 교육 기회, 취약한 보건 및 사회안전망, 노동력 포용 문제 등을 반영하여 사회 영향을 S-5(very highly negative)로 평가함.
- **(지배구조)** 부정부패 통제와 법치의 어려움이 기존 제도를 약화시키는 점, 법 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성, 그리고 지배구조 문제에서 양산된 은행 자산의 질 문제 등을 고려하여 G-4(highly negative)로 평가함. 다만 상대적으로 강력한 통화정책과 재정에 대한 신중성은 거시경제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 국제관계

### 강대국 간 패권 경쟁에서 균형 있는 실리주의 외교 노선 추구

- 방글라데시는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한쪽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있음. 방글라데시는 심화하는 미국-중국 무역 및 패권 갈등, 인도-중국 간 영토분쟁, 인프라 건설 선점과 무역 확대를 위한 주요 투자국 간의 경쟁을 최대한 자국의 실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와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으로 깊은 연관성이 있는 인도는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방글라데시가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음. 그러나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방글라데시와 중국 간의 경제적 밀착은 인도와의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인도와의 외교관계는 정권을 잡은 정당에 따라 큰 온도 차이를 보이는데, 'AL'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인도에 더 우호적이고 'BNP'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인도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긴장 관계를 연출하기도 했음.
- 올해 3월 27일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다카에서 방글라데시의 독립 50주년과 두 국가의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는 정상회담을 갖고 5개 분야(연결성, 상업, 정보, 통신, 스포츠)에서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무역상대국임. 방글라데시는 1위 교역 상대국인 중국으로부터 원자력 관련 기계, 의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전자제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군사 시설과 인프라 부문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송유관, 항만시설, 저장탱크 등 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있음.
- 2020년 6월 중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의 대 중국 수출 품목의 97%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음(2021년 1월 1일 발효). 방글라데시가 기존에 아시아-태평양 무역조약(Asia-Pacific Trade Agreement)에 의해 무관세 특혜를 받았던 품목은 3,095개였는데, 동 조치의 결과 8,256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음.
- 미국 주도의 다자간 안보기구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sup>3)</sup>에의 방글라데시 가입과 관련하여 미-중 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
- 방글라데시 주재 중국대사는 올해 5월 외신기자협회 행사에서 "방글라데시는 쿼드에 가입해선 안 되며 만일 가입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4월 말에는 중국 국방부 장관이 방글라데시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역외대국의 동맹 규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음.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방글라데시의 주권, 스스로 외교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방글라데시 외교부 장관은 "쿼드에 초대된 적도 없지만, 가입 하든 말든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며 "우리는 우리 외교 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중국에 불쾌감을 표출했음.

3) 쿼드는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주요국들의 반중국 군사동맹 성격이 강함.

##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 금융지원액의 연체율은 미미하고, 채무재조정 경험 없음

- 2020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지원잔액 39.1억 달러(단기 6.9억 달러, 중장기<sup>4)</sup> 32.1억 달러) 중 중장기 지원잔액 14.9백만 달러를 연체 중이며, 연체비율은 0.38%로 미미한 수준임.
- 방글라데시는 2007년 이전까지 일본을 포함한 원조국의 외채 탕감을 받은 사례(2003년~07년, 4.1억 달러 상당)가 있으나, 2007년 이후 파리클럽을 통한 채무재조정 경험은 없음.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21.06)	5등급(2020.06)
S & P	BB- (2020.08)	BB- (2019.05)
Moody's	Ba3 (2021.04)	Ba3 (2020.03)
Fitch	BB-(2020.11)	BB-(2020.11)

###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기존과 동일한 등급 유지

- OECD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장기 집권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2015년 6월 방글라데시의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2017년 이후 OECD CRAM(Country Risk Assessment Model) 점수가 높아지는(신용도 악화) 추세였지만, 2021년에는 소폭 낮아졌음.

\*OECD CRAM 점수: 32.0%(2017) → 35.6%(2018) → 40.8%(2019) → 44.9%(2020) → 43.2%(2021)

- Fitch(2020.11.11. 보고서)는 낮은 재정수입에 반하여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 취약한 투자환경, 은행 구조를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하였지만, 공공재정 구조의 지속적인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충격에 대한 복원력, 외화보유액의 증가 등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하였음.
- Moody's(2021.04.27. 보고서)는 재정 유연성에 제약이 되는 취약한 재정수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제도적 취약성 등을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하였지만, 견조한 성장 전망, 거시 경제 안정성, 높지 않은 부채 부담, 양허성 자금 조달 능력 등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하였음.

## 국제시장평가

- S&P(2020.08.12. 보고서)는 방글라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외부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극복할 것으로 전망함.

- 방글라데시 경제는 2020년 초에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력 수출산업인 의류의 생산·수출이 타격을 받았지만, 2020년 3·4분기부터 조금씩 회복하고 있음. 다만, 올해 7월부터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성장의 높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음.
- 2021/22회계연도 세입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외채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방글라데시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외채로 보전함에 따라 외채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총외채의 상당 부분이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채구조는 안정적이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한쪽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있음. 특히 최근 심화하는 미국-중국 무역 및 패권 갈등, 인도-중국 간 영토분쟁, 인프라 건설 선점과 무역 확대를 위한 주요 투자국 간의 경쟁을 최대한 자국의 실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음.